

## 은퇴와 관련한 중장년층의 고용현황 변화추이 분석 - 2003년과 2015년 현황 비교 -

신선옥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hinso@kli.re.kr)

KLI PANEL  
*Brief*

•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와 18차년도(2015년)에 조사된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은퇴와 관련한 중장년층의 고용현황 변화추이를 분석함.

- 은퇴상태별 비중은 2003년의 경우 은퇴 후 재취업자 1.5%, 완전은퇴자 38.0%, 비은퇴자 60.5%였으며, 2015년의 경우 은퇴 후 재취업자 2.8%, 완전은퇴자 24.9%, 비은퇴 72.3%인 것으로 나타나, 2003년 대비 2015년은 은퇴 후 재취업자의 증가, 완전은퇴자의 감소, 비은퇴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은퇴자 및 은퇴 후 재취업자의 실제 은퇴연령은 55세로 연도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은퇴자들은 은퇴 계획이 없었으며(2003년 77%, 2015년 85%), 은퇴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 은퇴연령은 2003년 62세, 2015년 64세로 나타남.
- 이 중 은퇴 후 재취업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재취업 일자리로의 종사상 지위별 변화를 살펴보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상용직 종사자의 경우 2003년에는 자영업으로 이동한 비중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에는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한 비중이 43.1%로 가장 높았음.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임시일용직 종사자의 경우 2015년은 자영업으로 이동한 비중이 54.1%로 가장 높았음.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2003년에는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한 비중이 48.1%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에도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한 비중이 5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은퇴 후 재취업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과 재취업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 간의 격차는 2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됨.
  - 2003년의 경우 은퇴 후 재취업자의 전체 월평균 임금은 79만 원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의 임금 143만 원과 비교하면 55% 수준이며, 2015년의 경우 재취업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126만 원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 월평균 임금인 267만 원의 47% 수준으로 나타남.
- 이에 은퇴 후 재취업한 중장년층 및 은퇴계획 없이 노동시장 참여가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부지원 정책과 서비스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1. 분석배경 및 목적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2003년(6차년도)과 2015년(18차년도) 2회에 걸쳐 부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중장년층의 노동시장에 대한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 최근 정부는 청년, 여성, 신중년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신중년 인생 3모작 여건을 조성하여 맞춤형 일자리지원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된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 2003년과 2015년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중장년층의 고용 현황과 임금변화 추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분석자료

### 분석자료 및 대상

- 한국노동패널 2003년과 2015년 중장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각 조사연도 기준 98패널 중 만 50~74세를 대상으로 분석함.

### 은퇴에 따른 경제활동상태 정의

- 2003년과 2015년 동일하게 조사된 문항인 주관적 판단인 '은퇴여부'와 객관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취업활동 여부'에 따라 재취업자, 비은퇴자, 완전은퇴자로 구분함.
  - 재취업자는 은퇴 후 재취업한 사람
  - 완전은퇴자는 은퇴 후 조사 당시 미취업인 사람
  - 비은퇴자는 은퇴하지 않고 조사 당시 취업 중인 사람

### 분석대상의 기초통계

- 본고의 전체 분석대상은 2003년 중장년층 2,437명과 2015년 중장년층 3,263명임(표 1).
  - 성별로는 2003년과 2015년 모두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가 2003년 49%, 2015년 50%대로 가장 높았으며, 60대는 각각 30% 후반대였으며, 70대 초반은 각각 10%대의 순이었음.
  - 교육수준별로는 2003년에 비해 2015년 조사에서 초졸 비중이 25%p 감소하였으며 고졸이 15%p 증가, 대졸 이상도 8.2%p 증가하여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남.

〈표 1〉 분석대상의 기초통계

(단위: 명, %)

항목	2003년		2015년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전체	2,437	100.0	3,263	100.0	
성별	남성	1,381	56.7	1,851	56.7
	여성	1,056	43.3	1,412	43.3
연령별	50대	1,192	48.9	1,648	50.5
	60대	962	39.5	1,213	37.2
	70대 초반	283	11.6	402	12.3
교육수준별	무학 & 초졸	1,135	46.6	717	22.0
	중졸	526	21.6	748	22.9
	고졸	504	20.7	1,164	35.7
	대졸 이상	272	11.2	634	19.4
은퇴상태별	재취업자	36	1.5	92	2.8
	완전은퇴자	927	38.0	813	24.9
	비은퇴자	1,474	60.5	2,358	72.3

주: 1) 2003년 무학 283명(11.6%), 초졸 852명(35.0%)임.

2) 2003년과 2015년 모두 응답한 중복응답자는 997명임.

자료: 한국노동패널 1-19차 학술대회용 자료.

- 은퇴상태별로는 2003년에 비해 2015년의 비은퇴자 비중이 11.4%p 증가하고, 재취업자 비중도 1.7%p 증가하였으나 완전은퇴자는 13.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르려는 중장년층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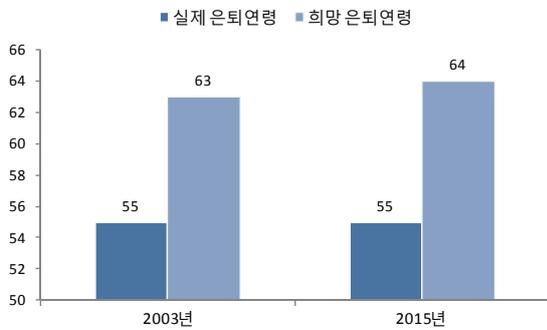
### 3. 은퇴상태별 인구통계적 특징

#### 실제 은퇴연령 및 희망 은퇴연령

- [그림 1]에서 보듯이 2003년과 2015년에 조사된 실제 은퇴연령과 희망 은퇴연령을 분석한 결과,
  - 2003년 조사의 완전은퇴자 및 재취업자의 실제 은퇴연령은 55세로 조사되었으며, 비은퇴자의 78%는 은퇴계획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은퇴계획이 있는 비은퇴자의 희망 은퇴연령은 63세로 조사됨.
  - 2015년 조사의 실제 은퇴연령은 55세로 나타났고 비은퇴자의 85%는 은퇴계획이 없었으며 희망 은퇴연령은 64세로 조사됨.
- [그림 2]에서 2003년에 조사된 비은퇴자들이 2015년에도 비은퇴자로 남아 있는 경우 이들의 희망 은퇴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3년 61세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015년에는 71세에 은퇴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연령이 높아지더라도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연도별 실제 은퇴연령 및 희망 은퇴연령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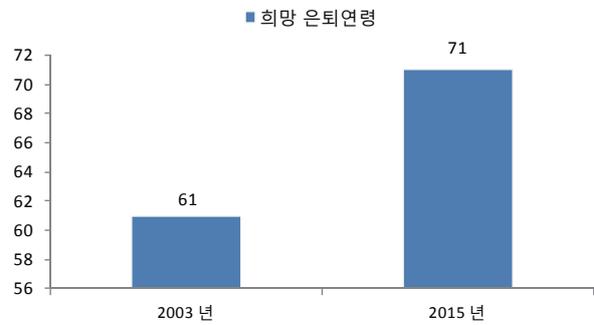


주: 1) 폴링 자료  
2) 각 연도의 횡단 가중치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 1-19차 학술대회용 자료

[그림 2] 중복응답자<sup>1)</sup>의 희망 은퇴연령 비교

(단위: 세)



주: 1) 폴링 자료  
2) 6차년도(2003년) 종단 가중치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 1-19차 학술대회용 자료

1) 참고: 2003년과 2015년 모두 응답한 중복응답자의 특성 변화(N=997)

(단위: %)

구분	2015년				
	재취업	완전은퇴	비은퇴	전체	
2003년	재취업	0.0	32.0	68.0	100.0
	완전은퇴	3.4	72.0	24.6*	100.0
	비은퇴	5.9	35.9	58.2	100.0
	전체	5.4	43.3	51.3	100.0

주: 6차년도(2003년) 종단 가중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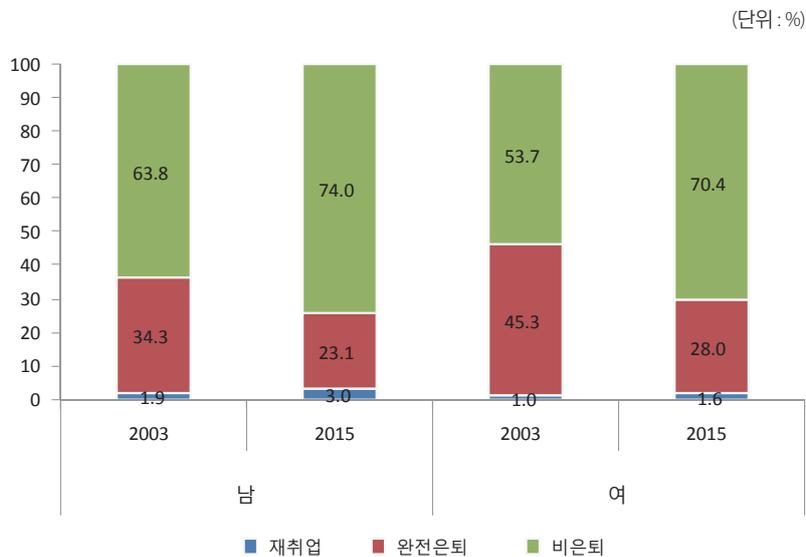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 1-19차 학술대회용 자료

\* 2003년 은퇴하고 미취업자였으나 2015년에 은퇴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이 오류로 보이지만 2003년 이후 재차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비은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은퇴상태에 따른 성별 분포 변화**

- [그림 3]에서 성별로 비교해 보면, 2003년에 비해 2015년은 남성 재취업자와 여성 재취업자의 증가, 남성 비은퇴자와 여성 비은퇴자의 감소, 남성 은퇴자와 여성 은퇴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성별로는 남성 재취업자가 여성 재취업자 비중보다 0.9% 높고, 비은퇴자 비중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데 반해 완전은퇴자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6.3% 낮음.
  - 2015년 성별로는 남성 재취업자가 여성 재취업자 비중보다 1.4% 높고, 비은퇴자 비중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데 반해 완전은퇴자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4.9%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은퇴상태별 성별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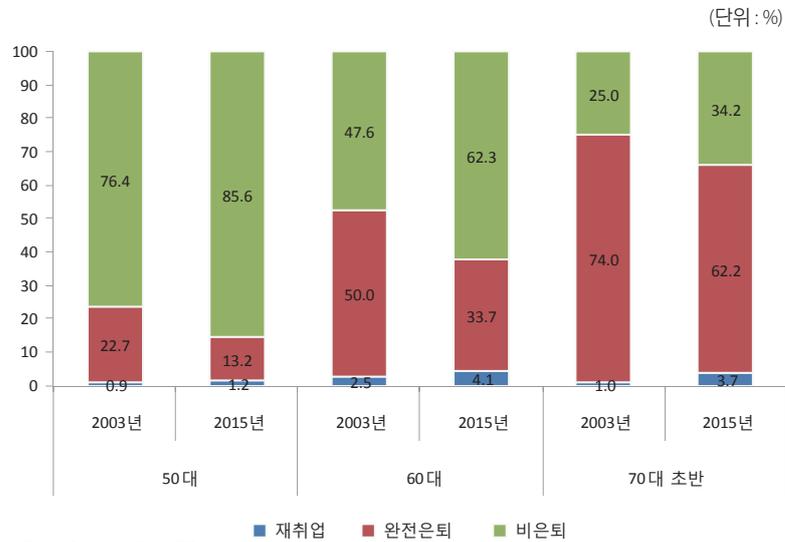


주: 각 연도의 횡단 가중치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 1-19차 학술대회용 자료

**은퇴상태에 따른 연령별 분포 변화**

- [그림 4]에서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완전은퇴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3년에 비해 2015년은 60대 완전은퇴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16.3%p)하였으며 비은퇴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13.9%p)한 것으로 요약됨.
  - 50대 재취업자 비중은 2003년에 비해 2015년 0.3%p 증가, 60대 재취업자는 1.6%p 증가, 70대 초반 재취업자 비중은 2.7%p 증가하여 70대 초반 재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음. 연령과 상관없이 재취업이라는 형태로 노동시장 참여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그림 4] 은퇴상태별 연령별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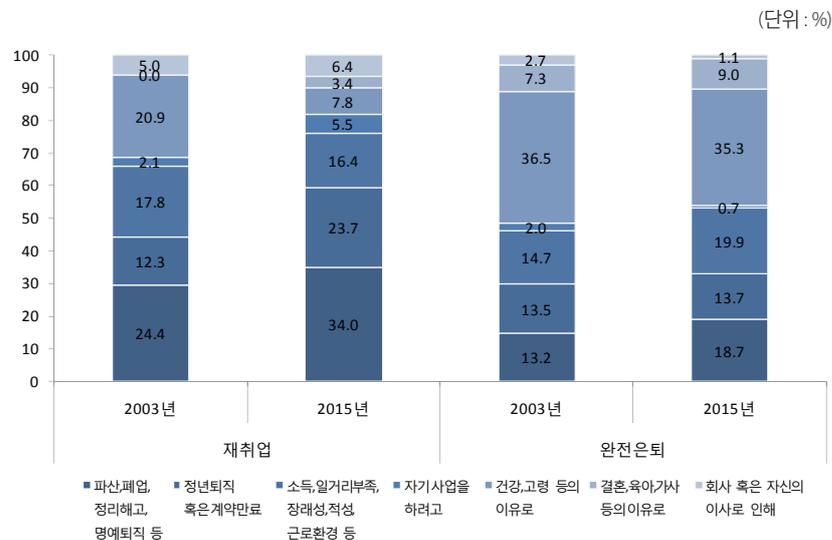


주: 각 연도의 횡단 가중치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 1-19차 학술대회용 자료

**은퇴상태별 생애 주된 일자리의 퇴직사유**

- [그림 5]의 은퇴상태의 구분에 따라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둔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재취업자와 완전은퇴자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
  - 재취업자는 ‘파산, 폐업,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퇴직한 비율이 2003년은 24.4%, 2015년은 3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3년은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20.9%)의 사유로 그만두었지만 2015년은 ‘정년퇴직 혹은 계약만료’(23.7%)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남.
  - 반대로 완전은퇴자는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그만두었다는 비중이 2003년 36.5%, 2015년 35.3%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5] 은퇴상태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사유



주: 각 연도의 횡단 가중치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 1-19차 학술대회용 자료

- 이처럼 외적인 상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에는 재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4. 은퇴 후 재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

##### 종사상지위 분포 변화

- <표 2>의 재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이동 변화를 살펴보면 재취업자 중에서 상당수는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과 2015년간의 재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면, 상용직 재취업자의 경우 2003년에는 34.4%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20.8%로 13.6%p 감소하였으며, 임시일용직 재취업자의 경우 2003년에는 31.0%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46.4%로 15.4%p 증가하였고, 자영업 재취업자의 경우 2003년 34.6%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32.9%로 1.7%p 감소하여 상당수의 재취업자는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장년층 재취업자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03년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의 상용직 종사자 중 상용직으로 이동한 재취업자는 38.1%,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한 재취업자는 21.4%, 자영업으로 이동한 재취업자는 40.5%로 조사됨.
  - 생애 주된 일자리의 자영업 종사자 중 24.3%만 자영업으로 동일한 일자리를 유지했으며, 자영업자 중 27.6%는 상용직 재취업으로, 48.1%는 임시일용직 재취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 생애 주된 일자리의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본 분석대상에서 0명이므로 이동변화 파악못함.
- 2015년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상용직 종사자가 상용직으로 재취업한 비중은 26.3%,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한 재취업자는 43.1%, 자영업으로 이동한 재취업자는 30.6%로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한 비중이 12년 전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생애 주된 일자리의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한 비중은 41.5%, 자영업으로 재취업한 비중은 54.1%, 상용직으로 재취업한 비중은 4.4%임.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자영업 종사자는 재취업 일자리의 자영업(29.5%)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임시일용직(55.9%)으로 이동한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직으로의 이동은 14.6%임.
  - 이처럼 최근 중장년층 재취업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재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분포 변화

(단위: %)

연도	생애 주된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생애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의 비중
		전체	구분	
2003년	상용직	34.4	상용직	38.1
			임시일용직	21.4
			자영업	40.5
	임시일용직	31.0	상용직	-
			임시일용직	-
			자영업	-
	자영업	34.6	상용직	27.6
			임시일용직	48.1
			자영업	24.3
2015년	상용직	20.8	상용직	26.3
			임시일용직	43.1
			자영업	30.6
	임시일용직	46.4	상용직	4.4
			임시일용직	41.5
			자영업	54.1
	자영업	32.9	상용직	14.6
			임시일용직	55.9
			자영업	29.5

주: 1) 폴링 자료 활용

2) 각 연도 횡단 가중치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 1-19차 학술대회용 자료

### 사업체 규모별 분포 변화

- <표 3>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재취업 일자리로의 사업체 규모별 이동 변화를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음.
- 2003년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에 비해 재취업한 일자리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전체 비중은 19.2%p 증가, 20~99인 사업장은 4.6%p 증가한 데 반해 30-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중은 6.1%p 줄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중도 17.6%p 줄어들었음.
  - 상용직의 경우 재취업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 비해 30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은 대폭 늘어난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음.
  - 임시일용직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와 재취업 일자리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어 보임.
- 2015년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에 비해 재취업한 일자리의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비중은 27.3%p 증가, 20~99인 사업장은 2.6%p 증가한 데 반해 30-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중은 18.1%p 줄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중도 11.8%p 줄어들었음.
  - 상용직의 경우 재취업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 비해 30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은 대폭 늘어난 반면,

-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은 줄어들었음.
- 임시일용직의 경우 재취업 일자리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 비해 30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은 늘어났음.
- 자영업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와 재취업 일자리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어보임.

〈표 3〉 재취업자의 사업체규모별 종사상지위 분포 변화

(단위: %)

	2003년								2015년							
	생애 주된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생애 주된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전체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전체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전체	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전체
10인 미만	22.3	100.0	100.0	56.9	29.7	100.0	100.0	76.1	8.7	60.5	97.4	40.0	36.6	55.7	100.0	67.3
10~29인	19.7	-	-	10.9	45.5	-	-	15.5	19.1	24.6	-	14.5	41.1	18.7	-	17.1
30~99인	16.2	-	-	9.0	8.4	-	-	2.9	41.4	10.8	2.6	26.7	13.4	13.5	-	8.6
100인 이상	41.8	-	-	23.2	16.4	-	-	5.6	30.8	4.1	-	18.8	8.9	12.1	-	7.0

주: 1) 플링 자료 활용  
2) 각 연도 횡단 가중치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 1-19차 학술대회용 자료

## 5. 은퇴 후 재취업자의 임금 변화

- <표 4>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재취업자의 이전에 가졌던 생애 주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과 재취업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간의 격차는 2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됨.
- 2003년의 경우 재취업자의 전체 월평균 임금은 평균 79만 원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의 임금 143만 원과 비교하면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생애 주된 일자리의 상용직 종사자가 상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 임금과 비교하면 71% 수준이며, 상용직 →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84%, 상용직 → 자영업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30% 수준으로 나타났음.
  - 생애 주된 일자리의 자영업 종사자가 상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 임금과 비교하면 41% 수준이며, 자영업 →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92%, 자영업 → 자영업인 경우 50% 임금격차가 나타났음.
  - 재취업자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상당수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취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인 근로조건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
- 2015년의 경우 재취업자의 전체 월평균 임금은 평균 126만 원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의 임금 소득 267만 원과 비교하면 4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생애 주된 일자리의 상용직 종사자가 상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 임금과 비교하면 52% 수준이며, 상용직 →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40%, 상용직 → 자영업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40% 수준으로 나타났음.
  - 생애 주된 일자리의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상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 임금과 비교하면 81% 수준이며, 임시일용직 →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48%, 임시일용직 → 자영업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21%

수준으로 나타났음.

- 생애 주된 일자리의 자영업 종사자가 상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 임금과 비교하면 54% 수준이며, 자영업 →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73%, 자영업 → 자영업인 경우 30% 임금격차가 나타났음.
- 2003년과 마찬가지로 상용직 재취업자라 할지라도 영세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임.

- <표 5>와 같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결과 재취업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시간당 임금 격차가 나타남.
  - 2003년의 경우 재취업자의 전체 시간당 임금은 평균 3천8백 원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 8천7백 원과 비교하면 44% 수준임.
  - 2015년의 경우 재취업자의 전체 시간당 임금은 평균 7천9백 원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 1만3천4백 원과 비교하면 57% 수준임.

〈표 4〉 재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변화

(단위: 만 원, %)

	생애 주된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생애 주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	재취업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	임금 비중* (%)
2003년	전체	전체	143	79	55
	상용직	상용직	156	111	71
		임시일용	65	55	84
		자영업	232	69	30
	임시일용직	상용직	-	-	-
		임시일용	-	-	-
		자영업	-	-	-
	자영업	상용직	154	63	41
		임시일용	80	73	92
		자영업	152	76	50
2015년	전체	전체	267	126	47
	상용직	상용직	386	201	52
		임시일용	300	120	40
		자영업	389	155	40
	임시일용직	상용직	170	138	81
		임시일용	151	73	48
		자영업	138	30	21
	자영업	상용직	211	113	54
		임시일용	133	97	73
		자영업	178	53	30

주: 1) 월평균 임금은 명목임금임.

2) 비중은 생애 주된 일자리 대비 재취업 일자리의 월평균임금 비중임.

3) 각 연도 횡단 가중치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 1-19차 학술대회용 자료

〈표 5〉 재취업자의 시간당 임금 변화

(단위: 백 원, %)

	생애 주된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생애 주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	재취업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	시간당임금* 비중(%)	
2003년	전체	전체	87	38	44	
	상용직	상용직	130	43	33	
		임시일용직	24	23	97	
		자영업	136	33	24	
	임시일용직	상용직	-	-	-	
		임시일용직	-	-	-	
		자영업	-	-	-	
	자영업	상용직	122	21	17	
		임시일용직	35	37	106	
		자영업	57	90	159	
	2015년	전체	전체	134	76	57
		상용직	상용직	200	116	58
임시일용직			153	73	48	
자영업			214	84	39	
임시일용직		상용직	99	73	74	
		임시일용직	64	66	102	
		자영업	68	27	39	
자영업		상용직	84	56	67	
		임시일용직	52	65	125	
		자영업	74	41	55	

주: 1) 월평균 임금은 명목임금임.

2) 비중은 생애 주된 일자리 대비 재취업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 비중임.

3) 각 연도 횡단 가중치 사용

자료: 한국노동패널 1-19차 학술대회용 자료

## 6. 요약 및 시사점

- 본고는 중장년층의 은퇴상태를 본인의 주관적 판단과 취업상태에 따라 재취업자, 완전은퇴자, 비은퇴자로 구분한 후 재취업자를 중심으로 근로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중장년층 재취업자는 자신의 생애 주된 일자리와 비교할 때 종사상 지위,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이 하락을 가져옴.
  - 재취업 시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고용특성을 보였으며,
  - 재취업 일자리에 얻은 월평균 근로소득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받던 월평균 근로소득에 비해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중장년층은 생활비 마련의 이유로 생계형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일지도 모르지만 중장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지원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중장년층에게 친화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며,

- 비자발적 퇴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직장이동을 지원하는 정책검토가 필요함.
  -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재취업을 했음에도 이전 직장보다 소득이 감소한 재취업자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임금보험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